4부 성경의 속성

성경론 20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신앙고백서 1.9–1.10 · 프레임 40장 성경의 해석 · 프레임 38장 고백, 신조, 전통 · 프레임 37장 신학 · 오웬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서론·7절·맺음) · (보조) 신앙고백서 1.6–1.8 일부 · 신앙고백서 1장 1.9-10

> ❓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교회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누가 정해?**

🧭 흐름 한눈에

해석이 갈린다는 사실 앞에서 신앙고백서는 '누구의 해석이 맞나'보다 먼저 '무엇이 규칙인가'를 묻습니다. 1.9는 그 규칙이 성경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한 구절의 뜻은 하나이고, 어려운 곳은 더 분명한 곳으로 풉니다. 프레임과 오웬은 성경이 한 저자가 쓴 하나의 이야기이기에 이 규칙이 설 수 있다고 받쳐 줍니다. 프레임은 해석이 갈리는 까닭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에 있으며, 교회와 교사와 성령이 그 간격을 메운다고 덧붙입니다. 이어 1.10은 해석이 끝내 부딪칠 때 판결할 최고 재판관을 세웁니다. 공의회도, 신조와 신학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개인의 주장도 모두 판결받는 자리에 서고, 판결하는 분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한 분뿐이며, 우리는 사람의 판정이 아니라 그 판결 안에서 쉽니다.

📜 절별 정리

📜 1.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다 (신앙고백서 1.9)

해석이 갈릴 때 사람들은 흔히 '누가 더 권위 있나'를 먼저 묻습니다. 1.9는 그보다

(1.4), 그 뜻도 같은 저자의 다른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안에도 이 방식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건을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풀었고(사도행전 15:15-16),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누가복음 24:27). 고백서는 예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왔다는 베드로후서 1:20-21을 근거로 들어, 저자이신 성령의 뜻을 따라 읽어야 함을 보입니다.

1. 해석의 잣대는 교회도 느낌도 아닌 성경
2. 저자가 한 분이니 성경이 성경을 푼다
3. 야고보는 아모스로 사건을 해석했다
4. 예수님도 모든 성경으로 자기를 푸셨다
5. 규칙은 사람 밖, 말씀 안에 있다

> **베드로후서 1:20-21**
> 예언은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왔다는 말씀으로, 저자의 뜻을 따라 읽어야 하는 근거(고백서 1.9의 증거 구절. 고백서가 1.3·1.4에서도 거듭 쓰는 구절)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사도행전 15:15-16**
>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이방인 사건을 해석함.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본보기(고백서 1.9)
>
>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 **누가복음 24:27**
>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심(고백서 1.9)
>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다.” — 신앙고백서 1.9

📜 2. 한 저자, 하나의 이야기 — 규칙이 서는 바탕 (프레임 40장 · 오웬 6장)

프레임은 성경이 스스로를 풀 수 있는 까닭을 영감에서 찾습니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인간 저자가 썼어도 하나님이 영감하셨기에, 성경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약은 구약을 전제하고 구약은 신약을 내다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세계관과 윤리와 역사와 복음으로 엮여 있으니 각 부분이 서로를 비춥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이 통일성이 시대와 문화의 거리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오웬은 6장에서 같은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졌는데도 하나의 정신과 설계와 목표를 지니며, 이는 전체를 한눈에 품는 한 지혜로운 저자를 증명합니다. 그 거룩한 교리로 보아 그 저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웬이 이 논증을 해석 규칙에 쓰지는 않지만, '한 저자의 책'이라는 그의 결론이 1.9의 규칙을 밑에서 받쳐 줍니다.

1. 영감 덕분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2. 신약은 구약을 전제, 구약은 신약을 내다봄
3. 통일성이 문화의 거리보다 크다(프레임)
4. 다양한 전달 속 하나의 정신과 목표(오웬)
5. 그 한 저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 프레임이 통일성의 근거로 삼은 '영감'의 대표 구절(고백서 1.2·1.4의 증거 구절. 프레임은 이 장에서 인용하지 않음)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레미야 23:36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스스로 내세우는 주장(오웬 정리본의 보충 구절. 오웬이 직접 든 구절은 아님)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성경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저자도 인정할 수 없다." — 오웬

📜 3.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 — 그러나 '온전한' 뜻 (신앙고백서 1.9 · 프레임 40장 각주)

1.9는 괄호 안에 한 구절의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고 적어 둡니다. 프레임은 이것이 중세의 '사중적 의미'를 거부한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중적 의미는 한 구절에 문자적·풍유적·도덕적·천상적 뜻이 함께 있다고 보는 해석법입니다. 그 방식은 원래 문맥을 거의 살피지 않았고, 비문자적 해석이 제멋대로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프레임은 그들이 짚은 것이 다 틀리지는 않았다고 공정하게 덧붙입니다. 구약 사건에서 윤리적 교훈을 끌어내는 일(고린도전서 10:6-12), 바울처럼 닮은 점을 보여 주는 비유를 쓰는 일(갈라디아서 4:21-31),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과 예언을 읽는 일은 쓸모가 있습니다. 또 대요리문답이 십계명을 아주 넓게 풀이한 것을 보면, 고백서 작성자들도 성경에서 넓은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얕다'가 아니라 '제멋대로 여럿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고백서가 그 뜻을 "참되고 온전한" 뜻이라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3. 문맥 무시와 자의적 해석이 문제였다
4. 윤리 적용과 모형론은 여전히 쓸모 있다
5. '하나'는 얕다가 아니라 '온전하다'

> **고린도전서 10:6-12**
> 광야 사건에서 윤리적 교훈을 끌어냄. 하나의 뜻에서 넓은 적용이 나온다는 예(프레임 각주)
>
>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 **갈라디아서 4:21-31**
> 바울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비유로 씀. 닮음을 보이는 해석도 쓸모 있다는 예(프레임 각주)
>
>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

“그 뜻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다.” — 신앙고백서 1.9

📜 4. 더 분명한 곳으로 — 모자란 쪽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신앙고백서 1.9 · 프레임 40장)

1.9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떤 구절의 뜻이 의심스러우면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로 살핍니다. 이 방법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쉽지는 않다는 1.7의 정직한 인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이 갈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레임은 성경은 어떤 면에서도 모자라지 않다고 답합니다. 모자란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말로 표현하고 우리 결정에 잇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석이 곧 '적용'이라고 제안하고, 요한복음 1:1로 의미의 세 층을 보여 줍니다. 1층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번역이고, 2층은 '태초'가 창세기 1:1의 창조이며 '말씀'이 요한복음 1:14가 밝히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설명이며, 3층은 그러니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입니다. 2층에서 이미 더 분명한 구절이 덜 분명한 구절을 풀고 있으니, 이 예 자체가 1.9의 방법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1. 의심스러우면 더 분명한 구절로 푼다
2.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진 않다(1.7)
3. 모자란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능력
4. 의미의 세 층: 번역·설명·삶의 방향
5. 요한복음 1:14가 1:1을 풀어 준다

> **베드로후서 3:16**
>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음. '더 분명한 곳'이 필요한 이유(고백서 1.7)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요한복음 1:1**
> 의미의 세 층을 보여 주는 중심 사례(프레임)
>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가 창조의 시작임을 밝히는 2층 설명(프레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1:1을 풀어 줌(프레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불충분함은 우리 안에 있다." — 프레임

📜 5. 혼자 건너지 않는다 — 교회와 교사와 성령의 조명 (프레임 40장 · 신앙고백서 1.6)

프레임은 "먼 옛날 남의 문화에서 나온 책을 어떻게 이해하나"라는 물음에 다섯 다리로 답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대인과 같은 인간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 이후 끊이지 않은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해 왔으므로, 그 간격은 텅 빈 골짜기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대 언어와 문화에 밝은 교사들을 주셨고, 그들은 틀릴 수 있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다리가 앞에서 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이고, 다섯째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고백서 1.6도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깨닫는 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조명은 새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해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 백성에게 닿는 일을 막지 못한다고 결론짓습니다.

1. 공통의 인간성이 시대를 잇는다
2. 간격은 믿음의 가족으로 채워져 있다
3. 교사는 틀릴 수 있지만 큰 도움이다
4. 조명은 새 계시가 아니라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일

요한복음 6:45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나아옴. 성령의 내적 조명(고백서 1.6)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고린도전서 2:12-14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앎(고백서 1.5가 2:10-12와 2:14로 씀. 프레임 정리본은 조명의 대표 구절로 보충했으며 프레임 인용은 아님)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평범한 수단의 본보기(고백서 1.7·1.10에 거듭 쓰임)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해한다." — 프레임

📜 6.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신앙고백서 1.10)

규칙이 있어도 해석은 끝내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은 신앙의 모든 논쟁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모르므로 오해한다고 하셨고, 모세의 기록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부르셨습니다(마태복음 22:29, 31). 바울도 이사야의 글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사도행전 28:25). 이 표현은 성경을 교회 권위 아래 두는 쪽과 성령을 성경에서 떼어 개인 체험에 두는 쪽을 함께 막습니다.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성령의 판결은 성경을 떠나 따로 들리지 않습니다.

1. 최종 판결자는 단 하나
2. 공의회·교부·사람의 가르침도 검토 대상
3. 판결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4. 성경을 교회 아래 두지 않는다
5. 성령을 성경에서 떼지 않는다

> **마태복음 22:29**
> 성경을 모르니 오해한다. 논쟁의 해답은 성경에 있음(고백서 1.10)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 **마태복음 22:31**
> 기록된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고백서 1.10)
>
>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 **사도행전 28:25**
>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고백서 1.10)
>
>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 **이사야 8:20**
>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모든 주장의 최종 호소처(정리본은 1.8의 증거 구절과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에베소서 2:20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교회 결정보다 앞선 기초(고백서 1.10, 1.2에도 쓰임)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공의회의 모든 결정, 옛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개인의 영적 주장도 그 앞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 신앙고백서 1.10

"이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다." — 신앙고백서 1.10

📜 7. 공의회와 신조는 판결받는 자리 —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 (프레임 38장)

1.10은 '공의회의 결정'과 '사람의 가르침'을 판결받는 자리에 둡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전통과 신조가 어디에 서는지로 풀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전통은 사도가 넘겨준 복음이고, 지금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해석을 성경 자리에 올린 나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마가복음 7:13). 로마 교회가 말하는 기록되지 않은 사도 전통에 대해서는, 그런 가르침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기로 하셨고, 오늘은 그런 주장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나 '본체·위격' 같은 용어처럼 피할 수 없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고칠 수 없고, 성경만큼 권위 있으며, 검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전통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교회 전체와 장로들의 합의이므로 개인 견해보다 무게가 있고,

만든 이 신앙고백서가 스스로 공의회를 성경의 판결 아래 둔 것도 같은 자리를 보여 줍니다.

1. 좋은 전통은 사도의 복음, 지금은 성경에
2. 사람의 전통이 말씀을 폐할 수 있다
3. 하나님은 책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4. 피할 것은 검증받지 않는 전통주의
5. 신조는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

> **마가복음 7:13**
> ★ 여러 책 공통(프레임 38장 · 고백서 1.6이 7:7-8, 13으로 함께 듦).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
>
>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고린도전서 15:2-3**
> 사도가 받은 복음을 교회에 넘겨줌. 좋은 전통(프레임)
>
> [2]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디모데후서 2:2**
> 충성된 사람에게 넘기라. 교회가 맡은 전수의 책임(프레임)
>
>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히브리서 13:7**
>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앞선 이들의 합의를 존중함(프레임)
>
>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히브리서 13:17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룬 합의의 무게(프레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 8. 신학도 성경 아래에서 — 체계는 요약, 근거는 성경 (프레임 37장)

신학자와 설교자의 해석이 서로 다를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프레임은 신학을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일로 정의합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신학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가르침'은 늘 사람을 세우려고 쓰이고, '바른 교훈'의 '바른'은 '건강을 주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목적은 교화, 곧 신자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큰 신학 체계는 성경 밑에 숨은 참뜻이 아니라 잘해야 성경의 요약입니다. 참 권위는 이야기와 노래와 서신을 모두 품은 성경 자체에 있으므로, 어떤 신학적 제안도 성경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1.10이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의 판결 아래 둔 것과 같은 원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통로가 되지만, 그렇다고 신학자가 틀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신학 = 성경을 삶 전체에 적용하는 일
2. 목적은 교화, 사람을 건강하게 세움
3. 신학 체계는 잘해야 성경의 요약
4. 모든 주장은 성경 근거를 보여야 한다
5. 신학자도 틀릴 수 있다

디모데전서 1:10

'바른 교훈', 곧 건강을 주는 가르침(프레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도서 1:9

바른 교훈으로 권하고 거스르는 자를 책망함. 가르침은 돕고 지킴(프레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4:6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음. 가르침은 사람을 기름(프레임)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42

사도의 가르침이 교제·떡을 뗌·기도와 나란히 놓임. 공동체를 세우는 가르침(프레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9. 개인의 영적 주장도, 나의 논증도 판결받는다 — 판결 안에서의 안식 (신앙고백서 1.10 · 오웬 6장)

1.10은 '개인의 영적 주장', 곧 “성령이 내게 직접 알려 주셨다”는 주장도 판결받는 자리에 둡니다.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며(요한일서 4:1), 프레임도 이 구절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잣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경 읽기를 막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1.8),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까지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사도행전 17:11). 오웬 6장은 해석을 직접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곳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쌓는 개연적 논증은 기껏해야 '굳은

확신의 세기나 내 논리의 정교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결이며, 고백서는 우리가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한다고 말합니다.

1. '성령이 내게' 주장도 검토 대상
2.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3. 개인 성경 읽기는 금지가 아니라 명령
4. 내 논증은 기초가 아니라 버팀목(오웬)
5. 판결은 사람 아닌 말씀 안의 성령께

> **요한일서 4:1**
>
> ★ 여러 책 공통(고백서 1.10 · 프레임 38장이 4:1-3으로 함께 듦).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사도행전 17:11**
>
>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함(고백서 1.10·1.7)
>
>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 **요한복음 5:39**
>
> 성경을 상고하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고백서 1.8)
>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고려들은 우리 믿음의 바닥과 기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버팀이 된다.” — 오웬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 신앙고백서 1.10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1장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고, 한 구절의 뜻은 하나이며, 어려운 곳은 더 분명한 곳으로 푼다. 모든 논쟁의 최종 판결은 어떤 교회도 개인도 아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있다.	규칙과 재판관을 모두 사람 밖, 말씀 안에 둠. 공의회와 개인 체험을 함께 판결 아래 둠	해석이 왜 갈리는지,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건너는지, 교회 전통과 신조가 실제로 어디에 서는지
프레임 『성경론』 37·38·40장	모자란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다. 해석은 적용이며 교회·교사·성경·성령의 다리로 건너고, 신조와 신학은 성경 아래의 이차적 기준으로 돕는다.	'해석 = 적용'과 의미의 세 층, 전통의 긍정적 자리와 한계, 신학은 교화를 위한 것	1.10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 자체와 고백서 1.9의 증거 구절(베드로후서 1:20-21 등)은 이 장들에서 다루지 않음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6장	이 장은 해석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다만 성경이 하나의 정신과 설계와 목표를 지닌 한 저자의 책이라는 논증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의 바탕을 받친다.	일치는 한 저자,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사람의 논증은 기초가 아니라 버팀목이다	해석 규칙과 최종 재판관. 신앙고백서와 프레임이 메운다
워필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	—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와 프레임이 메운다.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 재료에 없음). 신앙고백서와 프레임이 메운다.	—	—

- 고백서는 규칙(1.9)과 재판관(1.10)이라는 뼈대만 짧고 단단하게 세웁니다. '왜 해석이 갈리는가'와 '그 사이에서 무엇이 우리를 돕는가'는 프레임 40장이 '모자란 것은 우리'와 다섯 다리로 채웁니다.
- 고백서가 “공의회와 사람의 가르침도 판결받는다”고만 말한 자리를, 프레임은 전통·신조(38장)와 신학(37장)이 성경 아래 어디에 서는지로 구체화합니다. 결론은 '존중하되 성경으로 검증하라'는 하나의 태도로 모입니다.
- 오웬은 해석 규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 저자의 일치된 책이라는 논증으로 1.9의 바닥을 받치고, 사람의 논증을 기초가 아닌 버팀목에 둠으로써 1.10의 '안식'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 워필드와 바빙크는 이 편 재료에 없으므로 그들의 말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시리즈 공통)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불오성(시리즈 공통)

명료성(시리즈 공통)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평범한 수단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성질.

충족성(시리즈 공통)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성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어려운 구절은 같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더 분명한 다른 구절에 비추어 이해한다는 종교개혁의 원리(1.9).

사중적 의미
한 구절에 문자적·풍유적·도덕적·천상적 네 뜻이 함께 있다고 본 중세의 해석법. 1.9의 “뜻은 하나”가 이를 거부한다.

적용
말씀을 우리 말로 표현하고 삶의 질문과 결정에 연결하는 일. 프레임은 해석과 신학을 모두 이 말로 묶는다.

조명
성령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일. 새 계시를 주시는 것과 다르다.

최고 재판관
신앙의 모든 논쟁을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권위. 1.10은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라고 고백한다.

이차적 기준
성경이 최고 기준이고,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그 아래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만큼 기준 역할을 한다는 뜻.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 해석의 틀림없는 규칙은 성경 자신이며, 한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은 하나다.
- 해석이 갈리는 까닭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에 있다. 교회와 교사, 성경 자신, 성령의 조명이 그 간격을 메운다.
- 공의회, 신조, 신학, 개인의 영적 주장은 모두 판결받는 자리에 있다. 존중하되 성경으로 검증한다.
-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며, 우리는 사람의 판정이 아니라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한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성경의 해석
- 프레임 · 고백, 신조, 전통
- 프레임 · 신학
- 오웬 ·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